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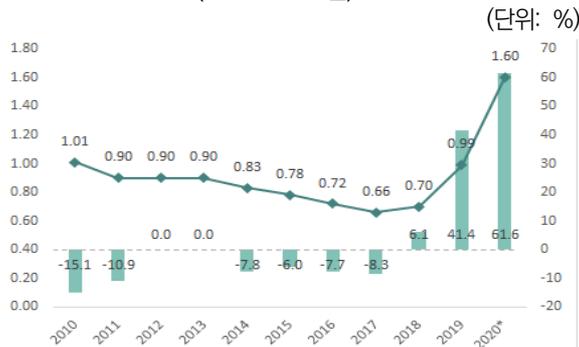
요약

2017년 이후 미국 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크게 증가하면서, 10년 이상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급격히 성장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소송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상조건을 강화하고자 함

○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2017년 이후 미국 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함

-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상승률은 평균 -8.8%로, 13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 6% 성장한 후 2019년과 2020년 각각 41.4%, 61.6%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¹⁾(〈그림 1〉 참고)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고성장은 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증가 및 관련 비용 증가에 기인하며,²⁾ 2017년 이후 미국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 제기 건수와 비용은 크게 증가함(〈그림 2〉 참고)

〈그림 1〉 연도별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지수 (2010~2020년)



주: 1) 기준연도는 2001년으로, 2001년 지수는 1임
 2) 2020년도는 1, 2, 3분기 값의 평균임
 3) 막대그래프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AON(2020. 11), "Quarterly D&O Pricing Index"

〈그림 2〉 연도별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건수(2010~2020년), 및 소송 관련 비용(2011~2019년)



자료: Stanford Law School's Securities Class Action Clearinghouse; A. M. Best(2020. 6. 10), "Accelerating Trends, Unprecedented Turmoil Could Lead to Seismic Change for D&O Industry"

1)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료 분석은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지수를 바탕으로 하며,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지수는 유형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총보험료/총보장 한도의 기중평균으로 2001년을 기준연도로 삼음.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지수에 대한 설명은 AON(2020. 11), "Quarterly D&O Pricing Index" 참고
 2) A. M. Best(2020. 6. 10), "Accelerating Trends, Unprecedented Turmoil Could Lead to Seismic Change for D&O Industry"

○ 최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성희롱,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동일한 이슈에 대해 파생되는 소송 건수가 증가함

- 최근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미투 운동, 개인정보 유출, 이사회 의 인종구성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소송(Event-Driven Litigation)이 증가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성격의 소송은 더욱 빈번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3월 연방대법원의 Cyan Inc. v. Beaver County Employees Retirement Fund 판결 이후,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동시에 제기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늘어났으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주대표소송과 같이 기업에 대한 기타 소송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³⁾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전반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소송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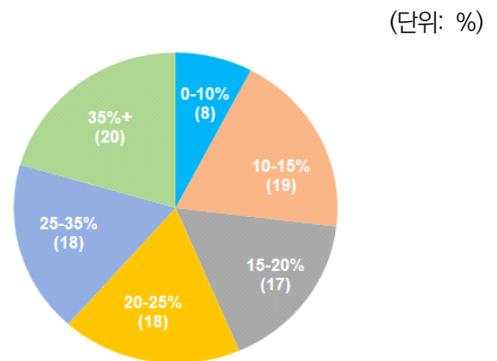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2020년 미국 대기업 파산 신청은 전년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파산한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집단소송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그림 3〉 참고)
-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경영 조치 등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제기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2020년 3월에 제기된 Norwegian Cruise Lines에 대한 소송으로, Norwegian Cruise Lines의 CEO와 CFO는 본사가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방역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며, 영업사원들에게 상품 판매 시 고객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낮추어 말하도록 지시하여 고객은 물론 선원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린 것에 대하여 피소되었음⁴⁾

〈그림 3〉 연도별 대기업 파산 신청 건수 (2010~2020년)



주: 1) 대기업은 보고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임
 2) 2020년은 3분기까지의 신청 건수임
 자료: Cornerstone Research(2020. 10), "Trends in Large Corporate Bankruptcy and Financial Distress"

〈그림 4〉 코로나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인상을



자료: A. M. Best(2020. 11), "Professional Liability Insurers Navigate Uncertain Terrain amid Pandemic"

3) Law360(2020. 9. 2), "Why D&O Insurance Is Costly Despite Fewer Securities Suits"
 4) Stanford Law School's Securities Class Action Clearinghouse

- 한편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약관의 변경도 추진 중임
 - A. M. Best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56%의 보험회사가 20% 이상의 인상을 계획함⁵⁾(〈그림 4〉 참조)
 - 미국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약관 개정 시 파산이나 코로나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⁶⁾

5) A. M. Best(2020. 11. 12), "Professional Liability Insurers Navigate Uncertain Terrain amid Pandemic"

6) Financial Times(2020. 9. 15), "Cost of Insuring Board Directors From Lawsuits Doubles in Covid Era"